

자동차

미국 인센티브 업데이트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▶ 현대차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2,531 (-21%, -\$657)

- 주요 모델: 아반떼 \$2,325 (-26%), 쏘나타 \$2,880 (-1%), 투싼 \$3,187 (-1%), 싼타페 \$2,019 (-41%), G80 \$3,814 (-13%)

- 지난 4월 대당 평균 \$4,000에 달했던 싼타페의 인센티브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, 낮은 재고수준을 유지 중인 Sedan 모델들의 인센티브 또한 하향 안정화 추세

▶ 기아차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3,359 (-2%, \$80)

- 주요 모델: K3 \$2,826 (-19%), K5 \$3,351 (-26%), 쏘울 \$2,307 (-6%), 스포티지 \$3,674 (+73%), 쏘렌토 \$4,832 (+11%)

- 낮은 수준의 재고관리를 통해 Sedan 모델들의 인센티브는 하향 안정화 지속 중이나, SUV 모델들은 노후화 및 경쟁심화로 인센티브 상승세

▶ 전체 산업 대당 평균 인센티브 \$3,718 (-2% YoY, 이하 YoY)

- Sedan \$3,444 (-11%), SUV/Pick-up \$3,835 (+2%)

- 주요 브랜드: Toyota -8%, Honda +4%, Nissan +6%, GM -4%, Ford -7%, FCA +4%, BMW -1%, Mercedes +26%, VW +9%

▶ 참고로 당사는 앞서 공개된 ALG의 인센티브 자료보다는 모델별/세그먼트별 인센티브가 공개되고 있는 Auto Data 인센티브를 follow-up하고 있음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2월 0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2월 0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2월 0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